

한국어 용언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박철우** · 김종명***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Park, Chulwoo & Jong Myung Kim. (2005). Le système des rôles sémantiques et son inventaire conçus pour la description sémantique des verbes et des adjectifs coréens, *Language Research* 41(3), 543-567.

La présente étude consiste à présenter un système descriptif des rôles sémantiques conçu pour les verbes et les adjectifs coréens. Plus particulièrement, il s'agit du système élaboré dans le cadre du projet Sejong pour le développement du dictionnaire électronique du coréen. Ce système comprend l'inventaire des rôles sémantiques qui est au nombre de quinze, les définitions sémantico-syntaxiques des rôles sémantiques ainsi que les principes théoriques et méthodologiques régissant à la constitution du système. A propos de ce système, il est essentiel de dire qu'il a été élaboré de façon empirico-inductive, mais non pas de manière hypothético-déductive. C'est ainsi qu'en partant d'un minimum a priori théorique, la construction du système s'est déroulée et s'est ajustée toujours en fonction des comportements syntaxico-sémantiques des verbes et des adjectifs coréens et cela, afin d'obtenir une synthèse qu'autorise leurs caractéristiques portant sur la relation thématique entre le prédicat et ses arguments.

Key words: 의미역(thematic role), 행위주(Agent), 대상(Theme), 경험주(Experiencer), 심리행위주(Mental Agent), 동반주(Companion), 장소(Location), 도착점(Goal), 결과상태(Final State), 출발점(Source), 도구(Instrument), 영향주(Effector), 기준치(Criterion), 방향(Direction), 목적(Purpose), 내용(Content), 세종전자사전(Sejong electronic dictionary)

* 이 논문은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본과의 용언 전자사전 구축의 의미역 정보에 대한 기술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세종 전자사전 책임자인 홍계성 선생님과 그간 의미역 정보에 관한 논의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던 김현권, 전영철, 임홍빈, 박정준, 박진호 등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세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논문에 여전히 나타나는 모든 오류는 필자들의 모자람에 기인하는 것임을 덧붙인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이 글은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 정보를 한국어 용언사전이 지녀야 하는 정보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사전 속에 체계적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다음 두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이 글은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 정보 기술에 유효한 의미역 목록을 한정하고 특정 용언이 지니는 특정 논항에 대해 어떤 의미역을 배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기준을 최대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역은 술어가 표상하는 의미구조 안에서 참여자(또는 의미 논항)가 가지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참여자의 존재론적(ontological) 의미나 의미 부류와는 별도로 술어가 표상하는 사건과 그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개념이다. 의미역은 주제관계(thematic relation)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Gruber (1976)가 동작과 관련된 동사들을 분석하면서 그 동작을 겪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구를 주제(theme)라고 부르고 이 주제의 개념을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확대하면서 모든 술어구문에는 주제로 기능하는 명사구가 있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1),2)} 이후, 의미역 이론은 Fillmore (1968)의 심층의미격(deep semantic case) 이론, Carter (1976)의 연결이론(linking theory) 등을 포함한 수많은 학자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언어학 이론에서 이론 내·외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도로 수용되어 이제 언어학적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미역 이론은, 학자마다 의미역의 수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아직 이론으로서의 완결성이나 확고한 지위를 주장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의미역을 정의하는 기준 자체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의미역은 대상(Theme)의 이동이라는 측면과 행위주와 피행위주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측면으로 처음부터 분리하여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³⁾ 한 걸음 더 나아가, 상(aspect 또는 actionsart)의 간섭까지도 의미역 설정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⁴⁾ 게다가 의미역에 대한 논의는 의미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 관계 또는 문법격에 대한 논의와 얽혀 있어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문법 관계 및

1) Jackendoff (1972:29) 참조.

2) 이후로는, 'Theme'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이라는 역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역어가 선호되는 것은 '주제'라는 말이 흔히 topic의 역어로도 사용되어 혼란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대상' 역시 정확한 번역은 아니겠으나 '움직임이나 동작의 주제'라는 좁은 정의와 관련지어 본다면, '주제'라는 역어보다는 이해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3) Jackendoff (1990)의 대상 층열(Thematic Tier)과 행동 층열(Action Tier)의 구분 등.

4) Grimshaw (1990)는 주제 차원(Thematic Dimension)과 상적 차원(Aspectual Dimension)을 구분하고 상적 차원에서 사건(event)을 행위(activity)와 결과적 상태(resulting state)로 나누어 행위를 유발하는 사동주(Causer)의 구별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술어의 사건구조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의미역의 고려에 있어서도 사건구조를 참조할 수 있게 되었다.

문법적이 지니는 구조적 의미를 밝혀야 하므로 문제의 해결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런 의미역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 글은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 정보를 사전 속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용한 적이 있는 의미역 목록을 갖고 출발하여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 정보 기술을 축적해 나감에 따라 경험적으로 조정한, 한국어 용언에 유효한 의미역 목록과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⁵⁾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지난 7년간(1998-2004) 세종용언전자사전의 약 2만 개의 용언에 대한 의미역 정보를⁶⁾ 기술하면서 경험적 발전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의미역 목록, 의미역의 정의 및 이에 관한 설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우리가 제시하려는 의미역 기술체계는 실제 언어자료에 기반을 둔 경험적 성격의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의미역 이론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의미역의 설정 범위와 목록

본고는 의미역의 설정 범위를 용언의 고유한 어휘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보어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용언의 보어가 될 수 있는 명사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즉 논항과 부가어의 구분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종전자사전의 문형 정보 기술⁸⁾을 그대로

-
- 5) 개별 의미역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다지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Somers (1987)가 어느 정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면 관계상 의미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였다. 더욱이 한국어에서 어떤 의미역이 필요한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특정 통사론 체계 내에서 일정한 의미역 목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개별 통사론의 기본서들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참고문헌에 일부 수록하였다. 또 의미역 관련 연구 전반에 관한 서지는 Syntax and Semantics vol. 21의 서지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 6) 이 의미역 정보는 향후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연언어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실제로 의미역 정보는 지금도 국내외에서 자연언어 처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기계번역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의미역 표상은 동일한 의미역 표상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통사구조를 지닌 두 언어의 구문을 연결시키는 중간언어 표상(interlingual representation)으로 사용되고 있다(한중기계번역 : 이휘봉(1998); PRINCITRAN의 증명, 한영기계번역 : Dorri(1995)). 그래서 기계번역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언어 처리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EUROTA, CAT2, LOGOS 등의 외국의 주요 전자사전들도 의미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7) 세종전자사전에서는 용언의 용법을 일반용언, 기능용언, 보조용언으로 동형어 구분을 한다. 일반용언이란 격들과 의미역을 지배하면서 해당 구문에서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는 용법이다. 보조용언이란 원칙적으로 구문의 격들과 의미역을 지배하지 않으며 자립성이 없어서 본용언에 붙어서 문법적, 어휘적 의미를 첨가해 주는 용법이다. 기능용언이란 서술어가 명사 범주로 어휘화된 술어명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문에서 용언 위치에 사용되어 문장을 완결시키는 경우이다. 즉 어휘 범주 상으로 보면 용언이지만, 의미적 술어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는 용언의 용법이다. 따라서 위에서 약 2만 개의 용언에 대한 의미역 정보란 일반용언으로서의 용언이 지니는 의미역 정보이다.
 - 8) 세종전자사전의 문형 정보란 세종전자사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논항과 부가어의 구분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한 서술어(동사 또는 형용사)와 그 논항들이 구성하는 구문의 모든 유형의 외연적 집합이다.

수용하였는데, 세종전자사전의 문형 정보는 대상 용언의 의미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또는 대상 용언이 그 의미를 구현하면서 특징적으로 실현시키는⁹⁾) 명사항이나 일부 부사, 부사 상당 어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 ㄱ. 철수는 어리석게 군다.
 ㄴ. 그는 영화를 찾으러 왔다.
 ㄷ. 그 물고기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
 ㄹ. 그는 영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
 ㅁ. 그는 영화를 집에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1)의 밑줄 친 요소들은 명사항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는 논항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특정한 용언과 공기할 경우 그 용언의 의미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또는 특징적인) 문요소로 기능한다. 세종전자사전의 문형 정보는 이렇듯 대상 용언의 의미 실현에 필수적 또는 특징적이라고 판단되는 명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문요소를 보여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전자사전에서는 문형 정보에 나타난 모든 문요소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의미역에 관한 본격적이고 개별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고에서 채택한 의미역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2) 의미역 목록
- [1] 행위주(Agent)
 - [2] 경험주(Experience)
 - [3] 심리행위주(Mental Agent)
 - [4] 동반주(Companion)
 - [5] 대상(Theme)
 - [6] 장소(Location)
 - [7] 도착점(Goal)
 - [8] 결과상태(Final State)
 - [9] 출발점(Source)
 - [10] 도구(Instrument)
 - [11] 영향주(Effector)
 - [12] 기준치(Criterion)

9) 예를 들어, 아래 예1)에서 나타나는 ‘사다’, ‘팔다’ 등의 동사가 지니는 이른바 가격보어(= ‘500 원에’)나 예2)에 나타나는 ‘가다’, ‘오다’ 등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지니는 ‘러’ 보어는 해당 구문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언이 그 의미를 구현하면서 특징적으로 실현시키는 문요소라고 볼 수 있다.

예1) 그는 철수에게 그 책을 500 원에 (사다 + 팔았다).

예2) 그는 신문을 사러 나갔다.

[13] 방향(Direction)

[14] 목적(Purpose)

[15] 내용(Content)

(2)의 의미역 목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정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의미역 정보의 체계적 기술을 통해서 한국어 용언 및 그 구문에 대한 의미적 유형론을 설정할 목적 하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역들의 목록을 가지고 출발하여,¹⁰⁾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 정보 기술을 축적해 나감에 따라 한국어에 부합되게 경험적으로 조정되고 발전된 것이다. 위의 의미역 목록의 설정에는 의미적 직관과, 이 직관을 뒷받침해 주는 문법관계나 의미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나 어미 등의 표지가 제시하는 형식적인 정보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었고 이와 아울러 선택제약 정보도 부차적으로 고려되었다.

3. 의미역 설정 및 기술 원칙

세종전자사전의 의미역 목록 및 의미역 기술은 다음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졌다.

- 1) 하나의 서술어를 특징짓는 구문에 나타나는 모두 문요소에는 각각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한다.
- 2) 한 구문의 서로 다른 두 논항에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 3) 두 대응구문의 동의관계나 규칙적인 의미 차이가 그 두 구문의 의미역 구조에 되도록 잘 반영될 수 있게 의미역을 부여한다.
- 4) 의미역 부여는 서술어와 논항 간에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관계를 포착하는 것이지 그 1차적 의미 관계가 함의하거나 그 1차적 의미 관계로부터 추론 가능한 2차적 의미관계를 포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 5) 모든 의미역은 하나의 층위에서 서로 계열체적인 관계를 이루는 단층위의 의미역 체계를 이룬다¹¹⁾.

10) 그러므로 1998년부터 시작된 세종전자사전 개발계획의 초반기에는 다음의 9개의 의미역을 갖고서 출발하였다: 행위주, 경험주, 동반주, 대상, 장소, 도착점, 출발점, 도구, 기준치.

11) 이는 현 세종전자사전의 의미역 체계가, Jackendoff (198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미역이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또는 그 이상의) 층위에서 작용하여 하나의 논항이 각각의 층위에서 의미역을 담당함으로써 복수의 의미역을 담당할 수 있는 다층위의 의미역 체계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명(2004)은 세종전자사전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세종전자사전의 단층위 의미역 체계를 복수 층위의 의미역 체계로 전환하여 의미역 기술을 좀 더 정밀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 2004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에는 현 세종전자사전의 단층위 의미역 체계와 김종명(2004)의 다층위 의미역 체계를 결합시켜 서로 연동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의미역 체계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다.

- 6) 현재의 단층위 의미역 체제에서는 하나의 논항이 두 개의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¹²⁾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위계에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하나의 의미역을 선택하여 부여한다:

행위주(Agent) > 경험주(Experience) > 대상(Theme) > 장소(Location)/도착점(Goal)/출발점(Source)/도구(Instrument)

이상의 원칙들은 대부분 세종전자사전의 의미역 구축 작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세운 원칙들이 아니라 그 구축 작업을 해 나감에 따라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현 시점에서 지니게 된 것들이다. 이 원칙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단락에서 개별 의미역과 기술을 위한 판정 기준을 논의하면서 함께 하고자 한다.

이후 제시될 개별 의미역에 관한 논의의 순서와 구성에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원칙이 없으며 조사 등 문법 관계 표지가 공유되는 범위에 따라 함께 묶어 논의하고자 한다.

4. 개별 의미역과 기술을 위한 판정 기준

4.1. 행위주

행위주는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¹³⁾

- (3) 가. 김 형사가 범인을 추적했다.
 나. 철수가 나를 때렸다.
 다. 내가 영희를 넘어뜨렸다.
 라. 철수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
 마. 영희가 공부하러 학교에 갔다.

먼저 행위주는 (3)에서와 같이 주로 주격조사 {-가}로 표시된다.¹⁴⁾ 그렇지만 {-가}로 표시된 명사구가 모두 행위주인 것은 아니다. 행위주에 대한 일반적인 직관은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행위주가 될 수 있는 명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명(2004)를 참조할 것.

13)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체 모두에 행위주의 의미역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체 중 심리행위주가 아닌 모든 개체가 행위주이다. 심리행위주에 대한 정의는 본 논문의 4.2에서 제시된다.

14) 조사 등 표지를 '{ }' 속에 나타낸 것은 가능한 이형태들을 대표한다는 뜻이다. 음운론적인 이형태, 어휘적 이형태 등을 포함한다. {-가}에는 '-이'가 포함된다든지, {-에게}에는 '-한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구는 우선 선택제약에 있어 [+유정물]과 그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리고 {-가}로 표시된 행위주 명사구는 해당 구문이 명령형으로 사용 가능하고 ‘려고 노력하다’, ‘라고 명령하다/요청하다’의 내포문에 분포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정된다. 아울러 이 행위주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고의로’, ‘일부로’ 등의 부사와 공기가 가능하다. {-가}로 표시될 수 있는 명사구들 가운데서 행위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은 다음 (4)와 같다.

- (4) ㄱ. 강풍이 입간판을 전부 쓰러뜨렸다.
 ㄴ. 이 정수기가 수도물을 1급수로 여과한다.
 ㄷ. 철수가 교장 선생님에게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ㄹ. 영호가 아주 잘생겼다.
 ㅁ. 영희가 나를 미워한다.

(4ㄱ-ㄴ)에서 ‘강풍’, ‘이 정수기’는 행위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있으나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행위주가 될 수 없다. (4ㄷ)에서 ‘철수’는 유정물이기는 하나, 수여받는다든 것이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위주가 되기 어렵다. (4ㄹ-ㅁ)의 ‘영호’나 ‘영희’는 행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배제된다.^{15),16)}

그런데 유정물은 아니지만 때로 유정물에 준하여 사용되는 명사류가 있다. 교통기관 명사류나 기관/단체 명사류가 그런 경우인데 이 명사류들이 특별히 유정물처럼 사용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5) ㄱ. 골목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왔다.
 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또 {-가}로 표시될 수 있는 명사구들 가운데서 명사구에 인간이 아니라 동물만이 분포하며 관련된 행위의 주체이나 행위주의 형식적 판별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존재한다.

15) 뒤에서 모두 논의하겠지만 (4ㄱ-ㄴ)의 ‘강풍’과 ‘이 정수기’의 의미역은 영향주로 판정하고 (4ㄷ)의 ‘철수’의 경우는 (‘표창장’의 이동의) 도착점으로 판정한다. 또 (4ㄹ)의 ‘영호’는 대상이 되며 (4ㅁ)의 ‘영희’는 경험주로 판정한다.

16) 그런데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의지적인 상태를 표현한다고 여겨지는 일단의 형용사들이 존재한다. ‘용감하다’, ‘침착하다’ 등의 형용사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나 그 논항이 스스로 의지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의 주어 논항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행위주의 형식적인 판별기준을 만족시킨다.

- 예) ㄱ. 철수야, 좀 더 (용감해라 + 침착해라).
 ㄴ. 나는 (용감하려고 + 침착하려고) 애썼다.
 ㄷ. 나는 그에게 좀 더 (용감하라고 + 침착하라고) 명령했다/주문했다.

이런 형용사가 갖는 인물 주어 논항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세종용언 전자사전 참여자들이 논의한 결과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6) ㄱ.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한다.
 ㄴ. 닭이 알을 낳는다.

이 경우 행위주 이외에 더 적절한 의미역을 찾을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새로운 의미역을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동물 명사의 의지적인 행위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겨서 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가} 이외의 다른 표지가 붙었을 때 행위주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7)과 같이 {-에게}가 붙는 경우가 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 (7) 그는 영희에게 맞았다

그런데 이 때 {-에게}는 {-에게서}와 환언이 되며 오히려 {-에게서}가 더 전형적인 쓰임이 아닌가 판단되어, 행위의 출처로 보아 출발점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7)의 피동사의 논항인 {-가} 명사구도 아래 (8) 예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행위주로 판정함과 아울러 {-에게}는 이 행동의 도착점으로 분석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 (8) 그는 영희에게 (고의로 + 일부러) 맞았다.

그러나 출발점이라는 의미역은 정의상 ‘대상’의 출처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위의 출처라는 모호한 설명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며, 더더욱 이 때의 행위는 (7)의 서술어 ‘맞다’의 “맞는” 행위의 출처가 아니라 “때리는” 행위의 출처이기 때문에 (7) 구문이 나타내는 서술어와 논항 간의 직접적인 의미 관계라고 볼 수 없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착점 역시 피동사의 주어 논항을 행위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이 아니므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7)의 구문은 (9)와 같은 능동-피동의 규칙적인 의미적 대응을 갖는다는 것을 참작할 때, (7)의 {-에게} 명사구는 행위주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 (9) 철수가 나에게 맞았다 ↔ 내가 철수를 때렸다.

{-에게} 이외에 {-에서} 명사구도 행위주로 판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유정물]에 준하는 명사류와 관련되는데 기관/단체 명사류가 행위주가 될 경우, {-가} 표지가 {-에서}와 교체가능하기 때문이다.

- (10) 정부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0)에서 ‘정부’를 장소로 보고 행위주가 뚜렷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행위를 일으킨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부 내의 누군가에게 있다기보다 ‘정부’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에서}와 기관/단체가 다른 행위주 명사구 없이 대상 명사구 앞에 나오는 경우, 이를 행위주로 판정하기로 했다.

4.2. 경험주와 심리행위주

경험주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상태를 인식하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 즉, 인지(cognition), 지각(perception), 감정(emotion)의 주체가 되는 논항의 의미역을 말한다.

(11) ㄱ. 나는 영희가 싫다.

- ㄴ. 철수는 오늘 오전에 총소리를 들었다.
- ㄷ. 철수가 그 사실을 안다/모른다.
- ㄹ. 나는 철수의 그 말이 아주 거슬린다.
- ㅁ. 민호가 그 여자에게 반한다.
- ㅂ. 그는 나를 두려워한다.

{가}를 취하면서 [+유정물]인 명사구 가운데 경험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은 (11)에서 보듯이, 주로 감정(심리)형용사 ‘좋다, 싫다, 밉다, 무섭다, 기쁘다, 행복하다 ...’ 등, 감정동사 ‘슬퍼하다, 좋아하다, 두려워하다, 화내다, 미워하다 ...’ 등, 지각동사 ‘보다, 듣다, 맡다 ...’ 등, 감각동사 또는 감각형용사 ‘느끼다, 저리다, 쑤시다, 아프다 ...’ 등, 인지동사 ‘알다, 모르다, 깨닫다, 이해하다 ...’ 등의 주어로 나타나는 명사구들이다. (11)의 예들 중에서는 (11 ㄱ, ㄹ)의 경우처럼 {가} 명사구가 {-에게는} 명사구로 교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교체 관계에 있는 두 구문 사이에는 의미 관계를 달리 할 만큼의 분명한 의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교체된 {-에게는}으로 표시된 명사구도 경험주로 판정하였다.

(12) ㄱ. 나에게는 토끼가 너무 무섭다.

- ㄴ. 철수의 그 말이 나에게 아주 거슬린다.
- ㄷ. 오늘 오전에 나에게 총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에서 {가} 명사구를 취하는 경험주는 (11ㄱ)과 같이 경험의 대상이 {-를} 명사구가 아니라 {가}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바로 이것은 한국어의 다중 주격 구문의 한 유형을 형성한다. 하지만 (11ㄷ)과 같이 형용사로부터 ‘-어하-’가 붙어 파생된 동사[17]의 경우도 경험주의 정의에 부합하며 의도성을 가진

17) 이는 편의적 지칭이고 여기서 ‘형용사+어하-’의 구성이 파생동사인지 통사적 구성인지에 대해서 그

행위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일부러 슬퍼하다’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종의 가장된 행위로서 사실은 ‘거짓으로 슬퍼한’ 것이 되므로 자연스러운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사동사 등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를} 명사구도 경험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13) ㄱ. 청년이 공주를 웃겼다.
 ㄴ. 철수가 나를 실망시켰다.

(13)에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이 비의도적 행위인 반면에 웃기는 것은 중의적이어서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비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또 이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의 대상인 {-를} 명사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발되는 감정의 주체가 됨으로 경험주로 판정했다.¹⁸⁾

또 문제제기적인 예로, 신체적 경험의 주체가 술어의 첫 번째 논항으로 나타난 경우를 들 수 있다.

- (14) ㄱ. 민호가 팔을 다쳤다.
 ㄴ. 영희가 많은 피를 흘렸다.

(14ㄱ)의 경우, ‘민호’와 ‘팔’의 의미역이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런 부류의 술어로는 ‘잘리다, 빠다, 접질리다, 꺾이다 ...’ 등이 있다. 이런 술어의 구문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4ㄱ)의 경우는 그 구문의 의미가 ‘민호가 다쳤다’를 함의하기 때문에 더욱더 ‘민호’와 ‘팔’의 역할의 구분이 애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 두 논항이 모두 대상으로 보인다는 데에 있다. 그렇지만 의미역의 기존 논의에서는 한 구문의 서로 다른 두 논항에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으며 세종전자사전의 의미역 부여 체계에서도 이 경우만이 유독 예외적으로 두 논항에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팔’에는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하고 ‘민호’에는 다른 의미역을 부여하고자

판단을 유보한다. 세종전자사전에서는 이러한 구성단위를 표제어로 다수 등재하고 있는데 이는 전산처리적 관점에서 취한 결정이고 순수언어학적으로 이 구성단위가 반드시 하나의 동사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18) 사실 (13)의 {-를} 명사구에 대한 의미역 부여는 세종전자사전 용언 연구진 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 하나이다. 어떤 연구자는 (13)의 {-를} 명사구가 서술어와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미관계에 있어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개체로 해석됨으로 대상의 의미역이 부여되어야 하고 경험주의 의미역은 이 1차적인 의미관계가 직접 나타내는 의미역이라기보다는 이 1차적 의미관계가 함의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주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파악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13)의 {-를} 명사구는 실제로 대상의 의미역과 경험주의 의미역이 중첩되어 부여되는 경우이고 한국어 용언에 대한 의미역 부여의 전체적인 양상에 있어서 대상보다는 경험주가 더 유효적으로 기능함으로 경험주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위의 (13)의 {-를} 명사구에 경험주의 의미역이 부여된 것은 결국 후자의 견해가 세종전자사전 용언 연구진 내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견해를 담고 있는 것이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치다’의 직접적인 대상이 ‘팔’인 것으로 보아 그 팔의 소유자인 [+유정물]의 존재를 경험주로 처리하기로 하며 경험주의 영역에 신체적 경험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14ㄴ)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 부분이 아니더라도 분비물(눈물, 피, 땀 등)을 방출하는 주체도 분명히 행위주는 아니고 그 직접적인 대상은 분비물 자체인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신체 경험의 경험주로 판정하였다. 그런데 (14ㄴ)의 경우는 {-가} 명사구를 분비물 이동의 출발점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즉 {-가} 명사구가 경험주와 출발점이라는 두 개의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우리는 출발점보다는 경험주가 해당 의미관계에 있어서 더 관여적이라고 판단하여 경험주의 의미역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행위주와 경험주의 중간 부류로 심리행위주(mental agent)를 설정하였다. 심리행위주는 감정, 지각, 인지의 정신적 행위(또는 경험)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경험주와 그 특성을 같이 하나 그와 동시에 그 정신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행위주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의미역이다.

- (15) 가. 선생님은 그 일을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오셨다.
 나. 사장은 새 공장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다/시청하였다.
 라. 철수는 그 연설을 경청했다.
 마. 나는 김 선생님을 존경한다.
 바.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심리행위주에 대한 판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주와 동일하다. 단지 행위가 정신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주와 구별되고 의도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주와 구별된다.

4.3. 동반주

동반주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의미역, 즉 행위주나 대상을 보조하여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

- (16) 가. 철수가 영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내가 철수와 싸웠다.
 다. 그 학교는 외교학과를 정치학과와 통합했다.

- (17) 철수와 영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반주의 판별은 매우 단순하다. (16)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 {-과}와 결합되는 명사구가 동반주의 의미역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17)의 경우처럼, 하나

의 명사구 속에 {과}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로서 하나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따로 의미역을 부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17)에서 ‘철수와 영화’는 하나의 명사구로서 행위주의 의미역이 부여된다.

이러한 의미역 할당은 적용이 편리하다는 점은 있지만 과연 의미역으로서 충분히 구별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단지 표지의 차이로 행위주 또는 대상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18)과 같이 행위주와 대상이 모두 나타나는 구성에서 동반주가 때로는 행위주를 보조하고 때로는 대상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를 충분히 변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 | | | |
|-------------|-----|-----|--------|
| (18) ㄱ. 철수는 | 영수와 | 필통을 | 맞바꾸었다. |
| 행위주 | 동반주 | 대상 | |
| ㄴ. 철수는 | 필통을 | 공책과 | 맞바꾸었다. |
| 행위주 | 대상 | 동반주 | |

그렇지만 다른 의미역과 역할이 같을 수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 {-를}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와 {-과}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가 의미적 측면에서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의미역의 구분이 반드시 하나의 균질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표지의 차이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그 차이를 규명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반주가 무엇을 보조하느냐의 문제는 반드시 의미역을 구분하여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순이나 동반주가 보조하는 개체와의 선택계약 동일성 등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으므로 다른 통사적 계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4. 대 상

대상은 의미역 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행위나 과정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받지만 그 과정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 좁게 정의될 때는 행위에 의해 옮겨지거나 그 존재나 위치가 묘사된 개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추상적인 경우를 포괄하여 술어의 서술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개체까지도 대상으로 본다.

- (19) ㄱ. 탁자 위에 꽃병이 놓여 있다.
 ㄴ. 철수가 아주 침착하다.
 ㄷ. 영미가 바위를 옮겼다.

- ㄷ. 인호가 유리병을 깨뜨렸다.
- ㄱ. 철수가 팔을 다쳤다.
- ㄴ.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한국어에서 대상에는 형용사나 자동사, 즉 별도로 {-를} 명사구를 가지지 않는 술어들의 논항 가운데 {-가}가 붙는 명사구들이 많이 해당된다. 다른 의미역들과 구별되며 그 자체가 술어 의미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197-1.) 참조).

일반적으로는, {-를} 명사구의 절대 다수가 대상의 의미역을 가진다. 기존의 많은 논의에서는 피해주(patient)를 대상과 구별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주와 대상의 차이는, 대상이 이동이나 위치와 관련될 뿐 그 개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데 반해 피해주는 그 행위에 의해 크건 작건 변화를 겪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을 던지다’에서 ‘공’은 공 자체가 변화를 겪는다고 보기 어렵지만 ‘컵을 깨뜨리다’에서 ‘컵’은 깨어지기 전의 온전한 상태에서 깨어진 뒤에 컵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리조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구별은 그 차이가 이와 같이 명백한 경우들도 많겠지만 중간적인 경우들도 꽤 많이 나타날 것이어서 구별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문지르다’의 경우, 걸레로 유리창을 문지르는 경우에는 먼지만 닦이고 유리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사포(砂布)로 나무판자를 문지르는 경우에는 나무판자의 일부가 쓸려 나갈 것이므로 나무판자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들을 놓고 그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대상과 피해주는 차이를 반영하는 문법적인 판별기준을 찾기 어렵다. {-를} 명사구 자리에 오는 명사들을 놓고 변화에 민감한 성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여 선택제약의 구별을 제시하기도 역시 어려운 일이다. 굳이 피해주를 구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대상의 정의를 좀 더 손에 잡히는 범위로 좁히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의미역 이론에서 대상은 이미 그러한 구체적인 역할보다는 다른 의미 관계들의 중심에 있는 개체로서 화자의 관심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피해주를 대상과 구별하여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또 기존 연구에서는 (20)과 같은 심리행위주나 경험주의 정신행위에 대한 대상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극(stimulus)¹⁹⁾, 지각대상(percept)²⁰⁾, 경험대상(experienced)²¹⁾ 또는 중립대상(neutral)²²⁾이라는 의미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20) ㄱ. 나는 영희가 싫다.

19) van Valin 2001.

20) Jackendoff 1972.

21) Rappaport 1983.

22) Rozwadowska 1988.

- ㄴ. 많은 행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목격했다.
- ㄷ. 그는 김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렇지만 (20)의 예문이 예시하는 것처럼, 하나의 구문이 이러한 의미역을 취하는 경우는 항상 심리행위주나 경험주의 의미역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역 정보는 거의 잉여적이라고 판단하여 따로 이런 의미역을 설정하지 않았다.²³⁾

4.5. 장소

장소(location)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장소나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 (21) ㄱ. 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ㄴ. 나는 지금 학교에 있다.
 ㄷ. 우리는 서울에 산다.

- (22) 우리는 그 숲 속에서 헤맸다.

장소는 대체로 (21)과 같이 조사 {-에}로 표시되지만 (22)와 같이 {-에서}로 표시될 수도 있다. 장소 의미역은 다른 의미역보다, 실제 처소적 의미를 가진 어휘들(‘산, 들, 바다, 길, 집’ 등)의 선택제약과 혼동되기가 더 쉽지만 그래도 의미역과 선택제약은 엄연히 구별된다. 예를 들어, (23)에서 ‘코’는 그 존재론적 의미에 있어서 장소라기보다는 신체의 일부로 더 잘 인식되지만 의미관계에 있어서는 파리가 앉았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3) 파리가 코에 앉았다.

그런데 {-에}로 표시되는 명사구들이 모두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에}로 표시되는 도착점 명사구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24)와 같이 도착점인지 장소인지 그 판단이 다소간 애매한 {-에} 명사구가 다수 발견된다.

- (24) ㄱ. 아버지는 집 앞 공터에 텃밭을 가꾸셨다.
 ㄴ. 형은 나무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

23) 완전히 잉여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앞서 경험주의 정의를 확대하여 받아들인 신체적 경험의 경험주가 동반하는 대상은 (20)에서 예시하는 정신행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신체적 경험의 주체를 경험주로 보는 것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을 지닌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ㄷ. 어머니는 벽에 페인트를 발랐다.
- ㄹ. 간수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었다.
- ㅁ. 영호가 술에 물을 탔다.

뒤에서 논의할 도착점은 이동의 목적지로 여겨지는 반면 장소는 술어가 표상하는 의미가 장소의 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와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이 관련됨을 나타낼 줄 뿐이다. 예를 들어, (23)에서 파리가 앉은 위치가 코인데 앉는 행위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면 그때의 코는 도착점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 없이 그냥 앉는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적인 위치가 코라면 장소가 될 뿐인 것이다. 그러한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에} 명사구를 모두 장소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하면 문제에 부딪힌다. (25)에서 ‘대전’과 ‘학교’는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5) 철수는 대전에서 학교에 다닌다.

장소와 도착점을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의 {-로}로의 전환가능성을 판별기준을 사용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에}가 도착점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 때 서술어가 물리적 이동의 과정을 지니는 경우에는, {-에} 보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로} 보어로 전환이 가능하다.²⁴⁾ 그것은 도착점까지의 이동이 도착점 방향으로의 이동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가 장소인 경우에는 {-로} 보어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장소는 그 술어가 표상하는 의미가 장소의 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방향으로의 이동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 (26) ㄱ. 철수는 (학교에 + 학교로) 편지를 보냈다.
 ㄴ. 나는 (강물에 + 강물로) 돌을 던졌다.
 ㄷ. 어머니는 (창가 안쪽에 + 창가 안쪽으로) 화분을 놓으셨다.
 ㄹ. 그는 (학교에 + 학교로) 갔다.

(26)의 예들과 같이 명백히 {-에}가 도착점인 예들은 모두 방향의 {-로}를 허용한다. 그리고 명백히 {-에}가 장소인 (21), (22) 예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24) 왜냐하면 ‘다다르다’, ‘이르다’, ‘도착하다’와 같이 도착점 {-에}를 취하더라도 물리적 이동의 과정을 지니지 않는 경우는 {-에} 보어가 방향을 나타내는 {-로} 보어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기차가 (도착점에 + *도착점으로) (다다랐다 + 이르렀다 + 도착했다).

두 방향의 {-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 (21) 가. *하늘로 별이 반짝인다.
 나. *나는 지금 학교로 있다.
 다. *우리는 서울로 산다.

(22) *우리는 그 숲 속으로 헤맸다.

(24)의 예들로 돌아가서 이 판별기준을 (24)에 적용하면 우리는 (24)의 {-에} 명사구가 모두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24) 가. *아버지는 집 앞 공터로 텃밭을 가꾸셨다.
 나. *형은 나무로 자기 이름을 새겼다.
 다. *어머니는 벽으로 페인트를 발랐다.
 리. *간수가 피의자를 유치장으로 가두었다.
 미. *영호가 솔로 물을 댔다.

한편 장소의 {-에서} 명사구는 {-를} 명사구로 교체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를} 명사구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할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 (27) 가. 그는 숲속에서 헤맸다.
 나. 그는 숲속을 헤맸다.

(27나)은 (27가)과 비교해 볼 때, 의미적 역할로서 여전히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를}에 의해 그 장소 전체가 문제되고 관여되고 있음을 참작하여 대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²⁵⁾

4.6. 도착점과 방향

도착점(goal)은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이 물리적 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끝점을, 추상적인 행위나 태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지향점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

25)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다음의 자-타동 교체구문의 {-에}, {-에서} 명사구에는 각각 도착점, 출발점의 의미역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을} 명사구에는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했다.

예) 가. 우리가 학교에 갔다. (도착점) ↔ 우리가 학교를 갔다. (대상)
 나. 그는 서울에서 떠났다. (출발점) ↔ 그는 서울을 떠났다. (대상)

- (28) 가. 철수가 서울에 도착했다.
 나. 내가 그에게 책을 주었다.
 다. 우리는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리. 철수가 (나에 대해 + 나에게) 적대적이다.
 모. 주인은 내게 음식을 계속 권했다.
 비. 철수는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시. 아버지는 딸에게 외출을 금지시켰다.

앞서 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술어에 이동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그 이동의 지향점을 도착점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동동사의 제2 논항이 전형적인 도착점이 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더라도 말, 태도 등 지향점을 지니는 행위의 지향점은 물리적 이동의 도착점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동일하게 취급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

도착점인 명사구는 대체로 {-에}나 {-에게}와 함께 실현될 수 있다. 무정물로서 처소의 의미를 가진 명사구들은 {-에}를 취하고 유정물인 인물명사 등은 {-에게}나 그에 준하는 표지와 함께 실현된다. 또 (28리)과 같이 {-에 대해1}과 결합하는 경우도 그것이 항상 {-에게}로 환언되기 때문에 도착점에 포함시킨다.

사동사는 시킴의 지향점인 개체가 다시 시켜진 행동의 행위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동사가 포함하고 있는 시켜진 행동보다 시키는 행동이 1차적인 의미관계에 있다고 판단됨으로 사동사의 {-에게} 명사구는 도착점으로 판정했다.

- (29) 가.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나. 선생님께서 민호에게 노래를 연습시키셨다.

도착점과 유사하지만 방향(direction)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일정하게 {-로} 명사구로 나타나면서 도착점이라고 하기에는 끝점이 불분명하여 단순히 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30) 가. 유조선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나. 영수는 학교에 갔다.
 나'. 영수는 학교로 가다가 다시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 철수는 서쪽으로 향했다.

26) 복합조사로 문법화된 ‘에 대해’는 {-에 대해1}와 {-에 대해2}로 구분된다. 전자는 지향점을 나타내며 {-에게}로 환언되지만 ‘에 관해’로는 환언되지 않는다. 반면에 {-에 대해2}는 ‘에 관해’로 환언되지만 {-에게}로는 환언되지 않는다. 그리고 {-에 대해1} 명사구는 도착점의 의미역을 부여받지만 {-에 대해2} 명사구는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예) 가. 그는 (나에 대해1 + 나에게 + *나에 관해) 적대적이다.
 나. 그는 (나에 대해2 + 나에 관해) 비판을 했다. (≠그는 나에게 (그에 대해) 비판을 했다.)

(30ㄴ)의 경우, 자주 지적되는 바와 같이 ‘학교에 가다’는 도착을 보장하지만 ‘학교로 가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어 (30ㄴ’)과 같이 취소가 가능하다.

4.7. 결과상태

결과상태(final state)는 술어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 (31) ㄱ.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로) 되었다.
 ㄴ. 그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
 ㄷ. 우리 팀의 골키퍼가 김병지로 바뀌었다.
 ㄹ. 우리 업체는 인삼을 당의정으로 가공한다.
 ㄹ. 그녀는 그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ㅂ. 선생님은 철수를 사위로 삼으셨다.
 ㅅ. 너는 나를 바보로 아니?
 ㅇ. 나는 이번 주에 처리할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ㅈ. 그는 감형을 받아 형기가 3년으로 되었다.

학교문법에서 ‘아니다’의 경우와 함께 예외적으로 보격으로 처리하는 (31ㄱ)의 ‘되다’의 두 번째 {-가} 명사구와 (31ㄴ)의 이른바 창조동사(creation verb) 구문의 {-를} 명사구는 결과상태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 밖의 경우엔 목적어나 주어 뒤에 나타나는 {-로} 명사구가 결과상태의 의미역을 가진다.²⁷⁾ 주로, 변화, 창조, 평가의 의미를 가진 술어들이 결과상태 의미역을 가지게 된다. (31ㅇ-ㅈ)은 그 변화가 수량적인 것일 때에도 결과상태로 판정할 수 있음을 예시한 것이다. 평가동사들과 관련하여 자격(status)과 같은 의미역을 따로 설정한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더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결과상태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은, {-로} 명사구가 어순상 대상인 명사구보다 뒤에, 즉 술어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로} 명사구가 자동사 구성의 경우 주어인 {-가} 명사구에 대해, 타동사 구성의 경우 목적어 {-를} 명사구에 대해 술어(predicate)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결과상태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은 지시성을 가지기 어렵다.

4.8. 출발점

출발점(source)은 동사가 이동이나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물리적이

27) 그렇지만 보문 보어진 경우에는 ‘-게’ 보문이나 ‘-도록’ 보문이 결과상태의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 그는 나를 (거기에 가게 + 거기에 가도록) 만들었다.

든 추상적이든 그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²⁸⁾

- (32) ㄱ. 철수가 서울에서 출발했다/떠났다.
 ㄴ. 그가 부진에서 벗어났다.
 ㄷ. 감독은 골키퍼를 김병지에서 김용대로 바꾸었다.

(32)가 보여주듯 변화 이전의 역할 등 변화의 기점이 술어의 필수적인 명사구로 실현된 경우는 출발점으로 포착할 수 있다.

출발점은 주로 {-에서}에 의해 표시되는데 그런 점에서 장소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에서}를 {-로부터}로 교체해 보아 자연스러우면 출발점으로 보기로 한다.

- (33) ㄱ. 다음 보기에서(/로부터)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ㄴ. 미란은 양동이에서(/로부터) 물을 한 바가지 덜었다.
 ㄷ. 화살이 과녁의 중심에서(/으로부터) 벗어났다.
 ㄹ. 이 문장에서(/으로부터) 한 단어만 삭제하면 완벽할 것이다.
 ㅁ. 우리는 이 밭에서(/으로부터) 보리 다섯 말을 거두었다.

4.9. 도구

도구(instrument)는 행위나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의 경우, 방편, 재료 혹은 경로를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 (34) ㄱ. 철수는 영수에게 들로 맞았다.
 ㄴ. 그들은 바리케이드로 앞길을 막았다.
 ㄷ. 그때 영미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었다.
 ㄹ. 우리는 그 다리로 강을 건넜다.
 ㅁ. 나는 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도구는 (34)에서 보여주듯이 {-로}로 표시된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도구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들을 더 세분하여 도구, 경로(path), 재료(material) 등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표시되는 형태가 같으며 한 문장에서 보어로서 이들이

28) 물리적 이동의 도착점과 추상적 이동의 도착점을 구분하여 물리적 이동에는 도착점, 추상적 이동의 도착점에는 결과상태라는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물리적 이동의 시작점과 추상적 이동의 시작점은 의미역 차원에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세종전자사전은 한동인(2001-2002년)은 이 둘을 구분하여 전자는 출발점, 후자는 최초상태라는 별개의 의미역을 부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구분이라고 판단되어 이 둘을 다시 출발점이라는 하나의 의미역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함께 출현하는 예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문요소라고 판단하여 분리하지 않았다.

- (35) ㄱ. *나는 쌀가루로 찜통으로 떡을 만들었다.
 ㄴ. *그는 그 배로 저 다리로 강을 건넜다.

도구가 {-가}나 {-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는 그 표지들이 가지는 역할을 먼저 고려하여 도구로서의 역할을 앞세우지 않기로 한다.

- (36) ㄱ. 이 정수기가 수도물을 1급수로 여과한다.
 ㄴ. (우리는) 이 정수기로 수도물을 1급수로 여과한다.

(36ㄱ)은, (36ㄴ)와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도구로 해석될 수 있는 개체가 {-가}로 표시된 경우이다. 우리는 이 경우 {-가} 표지가 가지는 역할을 먼저 고려하고 도구로서의 역할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 표지 명사구가 유정물이 아니므로 그 의미역이 행위주는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영향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4.10. 영향주

영향주(effectfor)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개체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 (37) ㄱ. 강풍이 입간판을 전부 쓰러뜨렸다.
 ㄴ. 눈이 온 산을 덮었다.
 ㄷ. 신학문이 조선 여성들을 새롭게 개화했다.
 ㄹ.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었다.
 ㅁ. 영미가 철수의 유혹에 걸렸다.

무정물 주어인 {-가} 명사구가 주로 영향주로 판정될 수 있다. 때로, (37ㄱ-ㄴ)과 같이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영향주와 도구의 차이는, 영향주는 따로 행위주가 실현되지 않지만 도구는 {-로}와 함께 실현되면서 행위주가 따로 실현되는 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36ㄴ)을 참조).

영향주는 {-에}로 실현될 수도 있다. (37ㅁ)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예들로는 (38)에 주어진 경우들을 포함할 수 있다.

- (38) ㄱ. 철수가 그의 꼬인에 넘어갔다.
 ㄴ. 철수가 피아에게 반했다.

㉔. 영호는 슬플에 겨워 울음을 참지 못했다.

4.11. 기준치

기준치(criterion)는 평가의 의미를 가진 술어의 경우, 평가되는 대상에 상대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 (39) ㄱ. 이 일은 내 능력에 부친다.
 ㄴ. 철수는 영희만(/보다) 못하다.
 ㄷ. 영호는 100kg이(/만큼) 나간다.
 ㄹ. 철수는 태권도 실력이 2단이 넘는다.
 ㄹ. 여러분의 저에 대한 평가가 분에 넘칩니다.
 ㅂ. 모인 사람은 전부 열 명에 불과하다.
 ㅅ. 철수는 영희와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다르다, 같다, 비슷하다’ 등의 형용사들이 (40)과 같은 구문을 가질 때에는 다소 판단이 애매하였다. 이 구문에서 {-와} 명사구는 기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결국 동반의 역할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기준치가 아니라 동반주의 의미역을 부여했다.

(40) 철수는 영희와 (같다 + 다르다 + 비슷하다).

4.12. 목적

목적(purpose)는 주로 이동동사의 경우,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41)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갔다.

일반적으로 부사절은 논항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이동동사의 경우, {-러}에 의해 이끌리는 절이 이동동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 그 역할이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므로 따로 하나의 의미역으로 설정했다. 아래 (42)의 예도 이동동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목적의 의미역을 지니는 부사절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다.

(42)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4.13. 내용

내용(content)는 발화동사, 인지동사, 평가동사 등의 경우, 발화, 인지, 평가의

내용을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43) ㄱ. 나는 철수가 갔다고 그에게 말했다.

ㄴ. 나는 그가 명청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목적과 함께 질로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용언의 논항구조에서 의미역을 기술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어에 유효한 의미역 목록과 각 의미역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그 경험적인 근거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의미역 목록은 기존의 다양한 이론과 기술에서 제시된 의미역 목록을 참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기존의 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 분할, 통폐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법적 표지나 선택제약의 구분이 증거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그러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의미역이 나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하였다.

우리의 논의가 일반적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의미역 목록보다는 많은 의미역을 상정하지만 입장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의미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²⁹⁾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문법적 장치로 실현되면서 단순히 어휘적으로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문법적으로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로만 의미역을 제한하여 인정할 때, 의미역이 언어 기술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급적 견지하려 하였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미역 자체가 원래 단일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문법 표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에게}/{-에}/{-에서}/{-로}의 도착점, 장소, 출발점, 도구를 표시하는 문법 표지가 붙은 명사구가 {-를}{또는 {-가}}로 교체될 때, 우리는 새로운 문법표지가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를 중시하여 그러한 구성의 의미역을 대상(또는 영향주)으로 기술하는 쪽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에게}가 경험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표지들이 {-가}로 교체된다 해도 그대로 경험주로 처리하였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표지의 교체에 상응하는 의미의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의 기술에 있어서 실제적 준거가 될 만한 의미역 목록과 그 설정 기준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가급적 추상

29) 그 한 예로 木村睦子(1997)를 들 수 있다.

하나 이론적 논의를 지양하고 사전적 기술에 응용할 수 있고 한국어 용언의 행태에 근거한 의미역 기술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의미역 목록과 정의 및 그 근거에 지나친 단순화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등 이론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기에 제시된 것보다 더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준이 제시되거나 현재의 기준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를 계속 수용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문오. (1997). 국어 자타 양용동사 구문의 의미구실 연구. 국어학 30, 257-83.
- 김영희. (2001). 여동 구문의 “와”. 국어학 38, 155-80.
- 김종명. (2004). 세종 용언 전자사전의 의미역 체계 보완을 위한 제안. 세종 전자사전 개발계획 학술발표회 논문집.
- 김현권, 김종명. (2001).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2001년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논문집.
- 남기심. (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박이정.
- 남승호. (2002). 처소노향 교체 의미론 -자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8(1), 295-318.
- 남승호. (2003). 한국어 이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노향교체. 어학연구 39(1), 111-45.
- 박정운. (1999). 한국어 도구격 조사의 다의어 체계. 언어 24(3), 405-25.
- 박철우. (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34, 75-111.
- 양단희, 정의석, 송만석. (1998). 격조사 ‘으로’에 의해 표지될 수 있는 의미역의 계층적 분류. 한국인지과학회 '98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12.
- 양정석. (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연재훈. (1996).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의 연구 -장소 보어 교체 구문과 소유주 인상 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232, 147-82.
- 연재훈. (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107-32.
- 이광호. (1985). 격조사 {로}의 기능 통합을 위한 시론-{로}는 수단격 조사이다. 선오당 김형기 선생 팔순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 이남순. (1998). 격과 격표지. 월인.
- 이선웅. (2004).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희. (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총서 11. 한국문화사.
- 임홍빈. (1974). {로}와 선택의 양태화. 어학연구 10(2).
- 임홍빈. (1999).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국어 문법의 심층 2, 341-377.
- 최호철 · 홍종선 · 조일영 · 송향근 · 고창수. (1998). 기계 번역을 위한 한국어 논항 체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3.

- 한정환. (2002). ‘가’, ‘를’의 연결이론. *어학연구* 38(3), 7-50.
- 홍기선. (1992). 연결이론와 한국어 연구. *주시경학보* 10, 3-32. 탑출판사.
- 홍윤표. (1983). 방향성 표시의 격. 고영근 · 남기십 공편. *국어의 통사 · 의미론*, 48-64. 탑출판사.
- 홍종선, 고평주. (1999). ‘-을’ 논항의 의미역 체계 연구. *한글* 243, 141-76.
-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국어학연구선집 9. 탑출판사.
- 홍재성. (1999). 1999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 (2000). 2000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 (2001). 2001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 (2002). 2002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 (2003). 2003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 (2004). 2004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Broadwell, G. A. (1988). Multifil θ -role assignment in choctaw in W. Wilkins (ed.); *Syntax and semantics*. semantics 21. Academic Press.
- Carter, R. J. (1976). Some Linking Regularities. unpublished paper. MIT.
- Dorr, B. J. (1995). Large-Scale Interlingual Machine Translation. *Proceedings of the NSF Interactive Systems Grantees Workshop*. Cambridge.
-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 R. 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210.
- Grimshaw, (1990). *Argument Structures*. The MIT Press.
- Gruber, J. S. (1976). *Lexical Structure in Syntax and Semant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 Jackendoff, R. (1987). The Status of Thematic Relations in Linguistic Theories. *Linguistic Inquiry* 18(3) 369-411.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The MIT Press.
- Oppentocht, L. (1999). *Lexical Semantic Classification of Dutch Verbs*. Universiteit Leiden.
- Rappaport, M. (1983). On the nature of derived nominal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Indiana Linguistics Club.
- Rozwadowska, B. (1988). Thematic Restrictions on Derived Nominals in W. Wilkins (ed.); *Syntax and semantics*. vol. 21. Academic Press.
- Saeed, J. I. (1997). *Semantics*. Blackwell Publishers.
- Somers. H. L. (1987). *Valency and Ca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The EAGLES Lexicon Interest Group. (1988). *EAGLES Preliminary Recommendations on Semantic Encoding Interim Report*.

van Valin Jr. R. (2001). *An Introduction to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木村睦子. (1997). 일본어에서의 표층격과 심층격의 대응관계. 國立國語研究所の報告 113.

박철우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 안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cwpa@anyang.ac.kr

김종명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전자우편 : lexique@hanmail.net

접수일자 : 2005. 6. 2

수정본 접수 : 2005. 9. 1

게재결정 : 2005. 9. 8